지역 소식통

부안, 가축전염병 대비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

부안군은 관내 축산농가의 주요 가축전염병 사전예방을 위한 방역약품 공급 및 가축 예방접종 등 가축방역대책을 수립 추진한다.

군은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가축방역약품 등 지원 사업비 7억 9천여 만원을 확보 축종별 가축방역협의회를 통해 선정된 소 설사병, 돼지일본뇌염, 뉴캣슬병 등 가축백신과 예방약품 44종을 적기에 공급해 가축질병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선정된 예방약품들은 생산자단체와 관내 담당지역 공수의사와 통해 사육규모, 질병 발생이력 등 여건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대상 농가부터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가축방역약품 지원과 더불어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소·돼지 등 우제류 45천두로,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 및 염소농가는 관내 공수의사를 동원하여 접종을 지원한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 치매안심센터 '쉼터' 운영

정읍시 치매안심센터가 치매환자의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고 치매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치매 환자 쉼터'를 운영한다.

'쉼터'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않는 경증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월요일에서 목요일(주 4일)까지 하루 3시간씩 운영된다.

치매 환자가 가정에 머물지 않고 쉼터를 방문해 인지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치매 악화 방지와 사회적 접촉 및 교류를 증진 시킬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한 인지강화훈련, 스트레스 해소와 사회적 접촉 및 교류 증진을 위한 명상, 미술치료, 요리치료, 원예치료, 신체건강을 위한 운동치료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다.

이를 통해 환자에게 남아있는 잔존능력 유지, 향상과 치매증상 악화 방지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일반산단 육가공공장 입주 논란에

주민·기업 상생 방안 찾겠다

유기상 군수, 노을대교 건립·갯벌세계유산센터 유치 등 추진 방향 밝혀

유기상 고창군수가 고창일반산단 육가공공장 입주 논란과 관련 "찬·반 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대화의 자리(공론화)를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고창군은 18일 오전 군청2층 종합상황실에서 '2021년 지역현안사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 군수는 "육가공기업 입주에 따른 수질이나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검증해보자고 다시 한번 제안드린다"며 "공론화를 통해 지역의 환경이 망가지고,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할 수 없는 기업이라면 유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군수는 지난 1월 대군민 호소문을 발표하면서 공론화를 통한 해결을 제안한 바 있다. 고창군주민자치협의회도 입장문을 내며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군민과 지역, 기업이 상생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공론화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특히 이날 고창군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노을대교'와 '고창갯벌세계유산센터' 등 총사업비 3조원에 달하는 대형투자사업 추진 방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군은 내년 대선 등을 앞두고 국토균형발전과 세계유산 5관왕(고인돌, 갯벌, 판소리, 농악, 생물권보전지역) 달성 등 국비 지원을 위한 논리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유기상 군수는 "지금 고창은 새만금 내부개발과 고창·부안해상풍력 배후도시에 따른 물류량이 늘고 있고, 일반산업단지 활성화로 전북에서도 변방으로 치부됐던 설움을 딛고 대한민국의 한 중심으로 도약하고 있다"며 "대형투자사업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아름답고 살기좋은 고창의 생태자원을 지키는 미래전략 사업이 될 것이다"고 설명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은 18일 오전 군청2층 종합상황실에서 '2021년 지역현안사업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정읍시, 관광음식점 시설개선 '전폭 지원'

최대 6천만원, 40% 자부담

정읍시가 국내외 단체관광객의 수용여건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입식 관광식당을 확충하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업의 피해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관련해 시는 18일 정읍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2021년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희망업소를 대상으로 추진 설명회를 열었다.

올해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총사업비는 지방비(시·도비) 2억7천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대상자는 기존에 앉아서 식사하기 불편했던 좌식시설을 40석 이상의 테이블과 의자가 설치된 입식 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음식점이다.

80석 이상 음식점에는 최대 6천만원, 40~79석 음식점에는 최대 4천만원이 지원되며, 총사업비 기준 40% 자부담을 조건으로 한다.

관광식당 지정 기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를 두어야 하고, 외국어로 병기된 메뉴판과 출입구가 각각 구분된 남·여 화장실을 구비해야 한다.

주 사업 내용은 입식 테이블 교체와 홀·화장실 리모델링, 외국어 메뉴판, 주방 집기류 교체 등을 지원한다.

시는 이번 사업설명회 개최 후 현장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위생적이고 쾌적한 음식문화 환경 조성으로 관광객 만족도 올리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문찬기 부안군의장,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챌린지 캠페인 동참

문찬기 부안군의회 의장이 18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번 챌린지는 올해 2월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선포한 비상사태에 불복해 쿠데타와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국민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문찬기 의장은 15일 이원택 국회의원의 지목을 받아 후발주자로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하기를 결심했다.

문찬기 의장은 "미얀마 군부 폭압에 맞서고 있는 미얀마 국민의 고귀한 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간곡히 염원하다. 우리나라도 과거 4·19, 5·18, 6·10항쟁 등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거쳐 오늘의 민주주의를 이뤄냈기에 미얀마의 투쟁의 아픔을 공감한다"라면서 미얀마의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릴레이 주자로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을 지목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눈꽃처럼 화사한 벚꽃로' 명성 그대로

정읍시, 4월까지 9200만원 들여 왕벚나무 48본 교체 식재

정읍시가 '눈꽃처럼 화사한 정읍 벚꽃로' 명성 유지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관련해 시는 올해 정읍 9경 중 하나인 벚꽃길에 식재된 왕벚나무 중 수형불량목 46본을 교체하고, 결식지에 2본의 왕벚나무를 보식한다.

시민을 비롯한 상춘객이 따뜻하고 화사한 봄을 맞이하게 함과 동시에 쾌적한 가로환경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오는 4월까지 9천2백만원을 들여 정읍 구 소방서에서 공감플러스센터까지 연장 4.1km 구간에 대해 왕벚나무 교체(보식)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차량 운행이 많은 편도 1차로인 보행로변 작업인 만큼 보행자 등 안전관리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또, 교통 혼잡시간을 고려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안전관리원을 상주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 수형 불량 미관 저해 나무와 병충해 피해목, 노쇠한 왕벚나무 161본에 대한 교체·보식 사업을 추진하며 벚꽃길 유지관리에 힘써 왔다"며 "앞으로도 벚꽃길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벚꽃길은 1973년에 정읍IC 사거리에서 상동 대림아파트까지 약 5.2km에 780여 본의 왕벚나무를 식재했다.

현재는 도로 확장 공사 등으로 144본이 제거돼 636본이 식재되어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 황토 꿀 고구마가 18일 첫 정식에 들어갔다.

고창 황토 꿀고구마 첫 정식

대형마트·편의점 납품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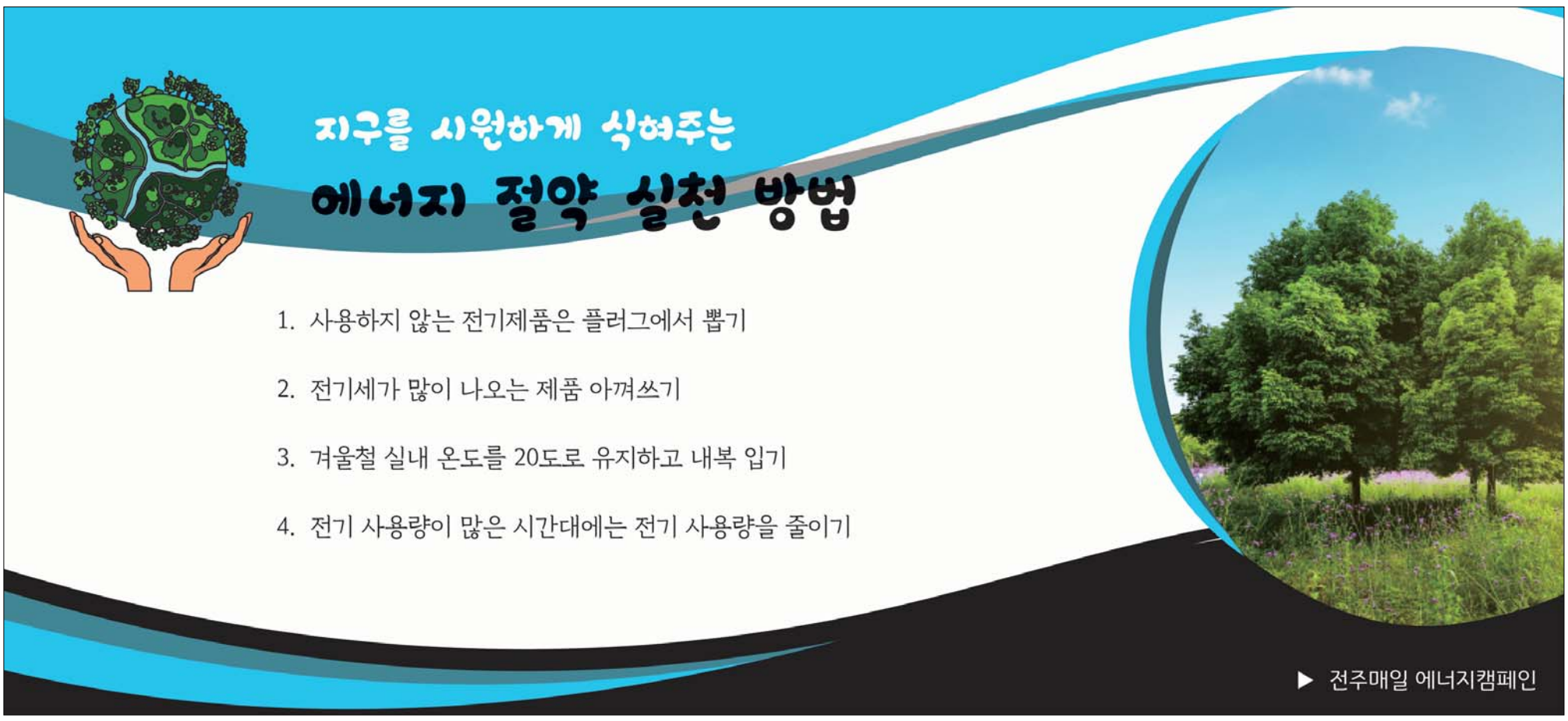
고창 황토 꿀 고구마가 18일 첫 정식에 들어갔다. 고창 고구마는 비닐 멀칭 후 이중터널을 이용한 속성재배기술로 일반 고구마 재배보다 한 달 정도 일찍 정식을 시작한다.

이번에 조기 출하용으로 정식하고 있는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은 내달 5일까지 약 66ha 면적에 고구마를 정식할 계획이다.

7월 휴가철에 맞춰 수확 예정인 고구마는 일반적으로 재배한 고구마에 비해 kg당 2000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또 영농조합은 이마트에 2500톤, 편의점CU에 700톤을 납품하기로 약정했다.

전북 최대 명품 꿀고구마는 산지인 고창은 약 1200여 농가, 모두 1250ha에서 고구마를 재배하고 있다. 특히 게르마늄과 미네랄 등 영양이 풍부한 황토지대에서 자란 고창의 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맛이 꿀처럼 달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이날 정식현장에는 고창군 임채남 농수축산경제국장, 임정호 고창군의회 부의장, 조규철 고창군의회 예결위원장, 차남준 고창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진기영 농협중앙회 고창군지부장이 함께해 농민들을 격려했다.

고창군 임채남 농수축산경제국장은 "우수한 고창의 꿀고구마가 높은 가격, 높은 품질, 높은 신뢰도, 높은 당도 등을 포함하는 고품질 안전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